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분석

## I. 출제 경향

### 1. 총평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지난 6월과 9월 모의평가의 출제 방향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대학 수학에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과 제7차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 목표 및 내용의 습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에서 다양한 소재와 대화의 글을 제시하여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기본이 되는 어휘 및 문법성 판단력, 사실적 이해력, 추론적 이해력, 종합적 이해력 및 적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들을 출제하였다. 외국어 영역 총 50문항 가운데 70%에 해당되는 35문항이 EBS 교재와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이 중 지문을 활용한 문항이 22문항, 자료를 활용한 문항이 4문항, 그리고 개념 및 원리를 활용한 문항이 9문항 출제되었다.

#### \* 출제경향 특징 3가지

1. EBS 연계 교재 6권에서 고르게 연계되어 70%(35문항)가 출제되었다.
2. 신유형 없이 6월과 9월 모의평가에 나온 유형들이 그대로 출제되었다.
3. 변별력 확보를 위한 고난도 문항이 빈칸 추론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 2. 파트별 세부 출제 경향

#### 1) 듣기 및 말하기

작년 수능, 그리고 6월과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하여 새로운 유형의 문항은 없었으며, 소재 면에서 화분 구입하기(1번), 사진 인화 비용 지불하기(5번), 세탁 부탁하기(7번), 보건실에서 대화(8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을 이용한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 2) 어법 및 어휘

어법 문항은 최근의 출제 경향에 맞춰 전반적으로 문장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출제된 주요 어법 사항들로는 과거분사와 문장의 본동사, 복합관계사, 분사의 능동과 수동, 동명사 주어의 수일치,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주격 보어의 품사 등이다. 어휘 문항은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고르는 유형과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르는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고르는 30번 문항과 문맥에 적절한 어휘를 고르는 31번 문항은 둘 다 EBS 교재와 연계되

어 제시되었으므로, 평소 어휘 학습을 충실히 하고 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읽었다면 큰 어려움 없이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이다.

### 3) 읽기 및 쓰기

거의 대부분의 문항은 작년 수능 및 6월과 9월 모의평가의 유형을 따랐다. 빈칸 추론 문항은 두 군데 빈칸에 적절한 표현을 추론하는 유형을 포함하여 총 여섯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필자의 주장을 묻는 문항 대신, 쓰기 유형인 문장의 적절한 위치를 묻는 문항이 두 문항 출제되었다.

## II. 난이도

### <2013학년도 6월, 9월 모의평가 및 2012학년도 대수능과의 체감 난이도 비교>

구분	2012학년도 대수능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외국어	어렵다	비슷하다	약간 쉽다

작년 수능에 비해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되었으며, 지난 9월 모의평가보다 약간 쉬운 정도로 출제되었다.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문항 없이 17문항 모두 EBS 교재와 연계되어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그러나 읽기 및 쓰기 영역의 경우, 고난도 문항인 빈칸추론 유형 26번과 27번이 EBS 교재와 연계되어 출제되지 않았고, 작년 수능보다 전반적인 어휘 수준도 높아졌을 뿐 아니라, 고난도 문항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문항들이 출제되어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도는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 1) 듣기 및 말하기

2012학년도 수능이나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출제되었으며 새롭게 시도된 유형은 없었다. 대화나 담화의 길이는 작년 수능과 비슷하였고, 17문항 모두 대화를 재구성하거나 소재, 그림 및 도표 등을 활용하여 EBS 교재와 연계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대화나 담화 중에 단서가 명확히 제시되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 2) 어법 및 어휘

어법 문항 20번, 21번은 전반적으로 문장 전체의 구조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따라서 EBS 교재와 학교 수업을 통해 기본적인 영어 구문 지식을 익힌 학생들은 별 문제없이 풀 수 있었으리라 예상된다. 어휘 문항 30번과 31번도 문맥 속에서 적절한 어휘를 파악하는 연습을 평소에 꾸준히 하고, 기본 어휘에 대한 학습을 병행했다면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 3) 읽기 및 쓰기

총 33문항 가운데 18문항이 EBS와 연계된 문항들이지만, 고난도 문항에 속하는 빈칸 추론 25번, 26번, 27번 문항과 장문독해 47번 문항이 EBS와 연계되어 출제되지 않았고, 전반적인 어휘 수준도 작년 수능보다 높아졌으며, 고난도 문항들이 문맥 속에서 비유적인 표현들을 정확히 이해하여 추론해야 풀 수 있는 문항들이어서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 예상된다.

### Ⅲ. 문항 분석

#### 1. 우수 문항

- 28번: ‘인간의 탐욕이 공동의 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글로서, 문맥 속에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두 개의 어휘를 빈칸 추론 문항으로 적절하게 구성함.

#### 2. 고난도 문항

- 27번: ‘진화에 미치는 유전적인 요소와 문화적인 요소의 관계’에 관한 글로서, 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비유적인 표현의 선택지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론해야 풀 수 있는 문항으로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요구함.

### Ⅳ. EBS 교재와의 연계성

#### 1. 연계표

문항번호	EBS 교재 연계 내용		
	교재명	쪽수	문항번호(내용요소)
1	수능완성(실전편)	4	1회 1번(그림 설명)
2	고교영어듣기 I	91	13~14강 16번(적절한 응답)
3	수능완성(유형편)	13	2강 6번(지칭 대상 파악)
4	고교영어듣기 I	164	31~32강 7번(부탁한 일)
5	수능완성(실전편)	49	4회 5번(숫자 정보 파악)
6	수능완성(실전편)	65	5회 12번(내용 일치·불일치)
7	수능완성(실전편)	34	3회 4번(할 일)
8	수능완성(실전편)	35	3회 9번(관계)
9	고교영어듣기 I	22	2강 2번(할 일)
10	고교영어듣기 I	126	25강 4번(담화의 주제)
11	수능완성(실전편)	20	2회 11번(도표)
12	수능완성(실전편)	65	5회 11번(도표)
13	고교영어듣기 I	172	33~34강 13번(상황에 맞는 대화)

14	수능완성(실전편)	79	6회 4번(할 일)
15	고교영어듣기 I	81	11~12강 4번(할 일)
16	수능완성(실전편)	49	4회 2번(심정)
17	고교영어듣기 I	172	33~34강 14번(적절한 응답)
19	수능특강	125	15강 exercise 7(글의 순서)
20	고득점 330제	47	104번(관계없는 문장)
21	고득점 330제	70	157번(제목)
23	수능특강	204	29강 2번(어휘(박스형))
28	수능완성(실전편)	91	6회 45번(요약)
30	수능완성(실전편)	12	1회 35번(주제 추론)
31	영어독해연습 1	132~133	19강 Final Test 8번(빈칸 추론)
32	고득점 330제	11	019번(도표 파악)
34	영어독해연습 2	79	10강 type 2(관계없는 문장)
35	수능특강	142	17강 exercise 1~3(순서, 제목, 빈칸)
36	수능완성(유형편)	40	9강 2번(빈칸 추론)
37	수능완성(실전편)	70	5회 31번(접속사)
38	영어독해연습 1	136	19강 Final Test 16번(어휘(박스형))
39	영어독해연습 2	78	10강 type 1(어법)
40	영어독해연습 1	110	15강 고난도 문항(글의 순서)
41	영어독해연습 2	43	5강 type 6(빈칸 추론)
42	영어독해연습 1	46	5강 고난도 문항(빈칸 추론)
43	영어독해연습 1	106	15강 exercise 1(글의 순서)

## 2. 체감 연계도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총 50문항 중 EBS 교재에서 35문항(70%)이 출제되어 체감 연계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듣기 17문항 중 17개 모든 문항, 독해 33문항 중 18문항이 연계되었다. 각 교재의 연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듣기는 <고교영어듣기 I>에서 7문항, <수능완성(유형편)>에서 1문항, <수능완성(실전편)>에서 9문항이 연계되었고, 독해는 <수능특강>에서 3문항, <영어독해연습 1>에서 5문항, <영어독해연습 2>에서 3문항, <고득점 330제>에서 3문항, <수능완성(유형편)>에서 1문항, <수능완성(실전편)>에서 3문항이 출제되었다. 듣기 17문항이 모두 EBS 교재와 연계되어 지문과 자료가 활용되어 출제되었고, 독해에서는 EBS 교재의 지문이 거의 그대로 활용되어 출제되었기 때문에, EBS 교재를 충분히 학습한 수험생들에게는 EBS 교재와의 체감 연계도가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연계 유형

EBS 교재와 연계된 문항은 총 35문항으로 연계 유형별 문항 수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연계 유형	지문 활용	자료 활용	개념 및 원리 활용	계
문항 수	22	4	9	35
비율(%)	44	8	18	70

## 4. 연계 유형별 세부 분석

- (1) **듣기 및 말하기** : 17문항이 모두 EBS 교재와 연계되어 출제되었는데, <고교영어듣기 I>에서 7문항, <수능완성(유형편)>에서 1문항, <수능완성(실전편)>에서 9문항이 연계되었다. <수능완성(실전편)> 1회 1번의 화분 그림 문항이 1번의 화분 그림 문항으로, <수능완성(실전편)> 2회 11번(도표)의 멀티탭을 고르기 문항이 11번의 같은 도표 문항으로, 그리고 <고교영어듣기 I> 33~34강 13번(상황에 맞는 대화)의 헤어드라이어가 작동되지 않는 그림의 상황에 알맞은 대화 고르기 문항이 동일한 상황에서 알맞은 대화를 고르는 13번 문항으로 활용되어 수험생들에게 EBS 연계 출제의 시각적인 친숙도를 높여주었다. <수능완성(유형편)> 2강 6번 '연설 중에 청중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요지의 지칭 대상 파악 독해 문항을 담화의 주제를 파악하는 듣기 3번 문항으로 활용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 (2) **어법** : <고득점 330제> 104번(관계없는 문장 고르기)과 157번(제목 추론) 문항은 20번(박스형)과 21번(밑줄형) 어법 문항으로 유형이 변형되어 출제되었다. 어법 문항은 이전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많이 다뤄졌던 사항들이 출제되었는데, 20번에서 과거분사와 문장의 분동사, 복합관계사, 분사의 능동과 수동, 21번에서 동명사 주어의 수일치,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주격 보어의 품사 등을 물어보았다.
- (3) **어휘** : <수능완성(실전편)> 1회 35번(주제 추론) 지문이 30번(밑줄형)으로, 또한 <영어독해연습 1> 19강 Final Test 8번(빈칸 추론) 지문이 31번(박스형)으로 변형 출제되었다. 개별적인 어휘의 뜻을 묻는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앞뒤 문맥 속에서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30번은 문맥 속에서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을 고르는 문항으로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낄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보상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글의 요지를 파악했다면, ③ deny를 realize로 고쳐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 31번은 문맥에 맞는 어휘를 박스에서 고르는 문항으로 '걱정이 정신적 일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라는 주제를 파악했다면, 문맥에 따라 (A) disastrous(파멸적인), (B) superior(우수한), (C) prone(~에 걸리기[빠지기] 쉬운)을 고를 수 있다.

(4) 읽기 및 쓰기 : EBS 독해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여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특히 주제, 제목, 요지 6문항이 모두 연계되었고, 쓰기 영역 5문항 중 3문항이 연계되어, EBS 교재의 지문을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들이라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수능특강> 29강 2번(어휘(박스형)) 문항의 지문이 23번 빈칸 추론으로 변형되었는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해야 한다.'는 요지를 파악했다면, 부정과 억압이 일어나면 분노와 분한 마음이 쌓이게 된다는 뜻의 ③번 stores up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다. <수능완성(실전편)> 6회 45번(요약문 완성) 지문은 (A), (B) 두 군데 빈칸을 채우는 문항으로 변형되었는데, '인간의 탐욕이 공동의 자원에 미치는 효과'라는 주제를 파악했다면, (A)와 (B)에 각각 maximize(최대화하다), exceed(초과하다)가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쓰기 영역에서는 <영어독해연습 1> 5강 고난도 문항(빈칸 추론)의 지문이 42번 이어질 글의 순서를 고르는 문항으로 변형되었는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선택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내용을 파악한 후, 논리적 흐름에 맞게 글의 순서를 고르면 된다. 6월과 9월 모의평가 때 보여주었던 것처럼, <수능특강> 17강 exercise 1~3 문항의 장문독해가 35번 글의 요지 문항으로 변형되어 출제되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 5. 대표 연계 문항

1) 13번: <고교영어듣기 1>의 헤어드라이어가 작동되지 않는 그림의 상황을 활용하여 동일한 유형의 문항으로 출제.

수능 문항 번호	연계 교재 정보
<p>13.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1점]</p>  <p>①      ②      ③      ④      ⑤</p>	<p>13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p>  <p>①      ②      ③      ④      ⑤</p>

2) 21번: <고득점 330제> 157번 제목 추론 문항의 지문을 활용하여 어법 문항(밑줄형)으로 변형 출제.

수능 문항 번호	연계 교재 정보
<p>2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p> <p>We take it for granted that film directors are in the game of recycling. Adapting novels ① <u>is</u> one of the most respectable of movie projects, while a book that calls itself the novelization of a film is considered barbarous. Being a hybrid art as well as a late one, film has always been in a dialogue with ② <u>other</u> narrative genres. Movies were first seen as an exceptionally potent kind of illusionist theatre, the rectangle of the screen corresponding to the proscenium of a stage, ③ <u>which</u> appear actors. Starting in the early silent period, plays were regularly “turned into” films. But ④ <u>filming</u> plays did not encourage the evolution of what truly was distinctive about a movie: the intervention of the camera—its mobility of vision. As a source of plot, character, and dialogue, the novel seemed more ⑤ <u>suitable</u>. Many early successes of cinema were adaptations of popular novels.</p> <p style="text-align: right;">* proscenium: 앞 무대</p>	<p style="text-align: center;"><b>157</b></p> <p>We take it for granted that film directors are in the game of recycling. Adapting novels is one of the most respectable of movie projects, while a book that calls itself the novelization of a film seems, rightly, barbarous. Being a hybrid art as well as a late one, film has always been in a dialogue with other narrative genres. Movies were first seen as an exceptionally potent kind of illusionist theatre, the rectangle of the screen corresponding to the proscenium, on which appear actors. Starting in the early silent period, plays were regularly “turned into” films. But filming plays did not encourage the evolution of what truly was distinctive about a movie: the intervention of the camera — its mobility of vision. As a source of plot, character, and dialogue, the novel seemed more suitable. Many early successes of cinema were adaptations of popular novels.</p> <p style="text-align: right;">* proscenium: 일무대</p> <p>① Elements of a Successful Movie                  ② From Visual Arts to Literature                  ③ Film Adaptations of Novels                  ④ Movies: The State-of-the-Art Technology                  ⑤ Plays Calling Themselves Character-makers</p>

3) 23번: <수능특강> 주제·소재 편 29강 2번 어휘 추론(박스형) 문항의 지문을 활용하여 빈칸 추론 문항으로 변형 출제.

수능 문항 번호	연계 교재 정보																								
<p>[23~27]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p> <p>23. To say that we need to curb anger and our negative thoughts and emotions does not mean that we should deny our feelings. There is an important distinction to be made between denial and restraint. The latter constitutes a deliberate and voluntarily adopted discipline based on an appreciation of the benefits of doing so. This is very different from the case of someone who suppresses emotions such as anger out of a feeling that they need to present a facade of self-control, or out of fear of what others may think. Such behaviour is like closing a wound which is still infected. We are not talking about rule-following. Where denial and suppression occur, there comes the danger that in doing so the individual _____ anger and resentment. The trouble here is that at some future point they may find they cannot contain these feelings any longer.</p> <p style="text-align: right;">* facade: 표면, 겉</p> <p>① fades out      ② copes with      ③ stores up                  ④ soothes      ⑤ overestimates</p>	<p>2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To say that we need to curb anger and our negative thoughts and emotions does not mean that we should deny our feelings. There is an important distinction to be made between denial and restraint. The latter constitutes a (A) <u>desperate / deliberate</u> and voluntarily adopted discipline based on an appreciation of the benefits of doing so. This is very different from the case of someone who suppresses emotions such as anger out of a feeling that they need to present a facade of self-control, or out of fear of what others may think. Such behavior is like (B) <u>healing / closing</u> a wound which is still infected. We are not talking about rule-following. Where denial and suppression occur, there comes the danger that in doing so the individual stores up anger and resentment. The trouble here is that at some future point they may find they cannot (C) <u>contain / attain</u> these feelings any longer. <span style="float: right;">* facade: 가면, 껍</span></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th> <th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A)</th> <th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B)</th> <th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C)</th> </tr> </thead> <tbody> <tr> <td>① desperate</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healing</td> <td style="text-align: center;">..... contain</td> </tr> <tr> <td>② desperate</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healing</td> <td style="text-align: center;">..... attain</td> </tr> <tr> <td>③ deliberate</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healing</td> <td style="text-align: center;">..... contain</td> </tr> <tr> <td>④ deliberate</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closing</td> <td style="text-align: center;">..... contain</td> </tr> <tr> <td>⑤ deliberate</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closing</td> <td style="text-align: center;">..... attain</td> </tr> </tbody> </table>		(A)	(B)	(C)	① desperate	.....	healing	..... contain	② desperate	.....	healing	..... attain	③ deliberate	.....	healing	..... contain	④ deliberate	.....	closing	..... contain	⑤ deliberate	.....	closing	..... attain
	(A)	(B)	(C)																						
① desperate	.....	healing	..... contain																						
② desperate	.....	healing	..... attain																						
③ deliberate	.....	healing	..... contain																						
④ deliberate	.....	closing	..... contain																						
⑤ deliberate	.....	closing	..... attain																						





42.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you walk into a store, you are besieged by information. Even purchases that seem simple can quickly turn into a cognitive quagmire. Look at the jam aisle.

- (A) Rational models of decision-making suggest that the way to find the best product is to take all of this information into account and to carefully analyze the different brands on display. But this method can backfire.
- (B) A glance at the shelves can inspire a whole range of questions. Should you buy the smooth-textured strawberry jam or the one with less sugar? Does the more expensive jam taste better?
- (C) When we spend too much time thinking in the supermarket, we can trick ourselves into choosing the wrong things for the wrong reasons. Making better decisions when picking out jams or bottles of wine is best done with the emotional brain, which generates its verdict automatically.

\* quagmire: 수렁, 진창

-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고난도 문항을 정복하라!**
2023. 11. 22

■ 다음 빈칸에 들어갈 글의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you walk into a store, you are besieged by information. Even purchases that seem simple can quickly turn into a cognitive quagmire. Look at the jam aisle. A glance at the shelves can inspire a whole range of questions. Should you buy the smooth-textured strawberry jam or the one with less sugar? Does the more expensive jam taste better? Rational models of decision-making suggest that the way to find the best product is to take all of this information into account and to carefully analyze the different brands on display. But this method can backfire. When we spend too much time thinking in the supermarket, we can trick ourselves into choosing the wrong things for the wrong reasons. Making better decisions in picking out jams or bottles of wine can be best done with the emotional brain, which generates its verdict automatically. In many circumstances, we can make better consumer decisions by \_\_\_\_\_.

\* quagmire: 수렁

① following the recommendation of experts  
 ② analyzing all the given information thoroughly  
 ③ knowing less about the products we are buying  
 ④ assuming that cheaper products are of lower quality  
 ⑤ keeping in mind that logical thinking leads to wisdom